

[21004-0019]

01 (가)와 (나)를 참고할 때, <보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가)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ㅉ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격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ㅔ	ㅑ	ㅓ	ㅗ
저모음	ㅐ		ㅚ	

【 보기 】

첫음절의 표기	둘째 음절의 표기
㉠	㉡

- 자음을 받음할 때의 특징: ㉡의 초성에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의 종성이 ㉠ 종성의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발음된다.
- 모음을 받음할 때의 특징: ㉠은 입술 모양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고 ㉡은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한다.

① 난로

② 국민

③ 밥물

④ 만능

⑤ 꽃눈

[21004-0020]

02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말의 음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ㄱ’을 각기 다른 음성으로 발음해도 그것을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음운을 구별할 때는 최소 대립쌍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말한다. 최소 대립쌍을 통해 구별되는 음운을 찾으려면 단어의 쌍을 발음할 때 나는 소리 중의 한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 우리말 음운에 대해 탐구해 보자.

불, 불, 발, 풀, 강, 감, 우리, 뿌리, 국위, 국어

* 단, 제시된 단어들의 모음은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하며, 단어의 뜻에 따른 소리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불’, ‘불’, ‘발’은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ㄴ’, ‘ㄷ’, ‘ㅌ’를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불’과 ‘풀’은 초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ㅂ’과 ‘ㅍ’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강’과 ‘감’은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ㅇ’과 ‘ㄹ’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우리’와 ‘뿌리’는 첫음절의 초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ㅇ’과 ‘ㅍ’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국위’와 ‘국어’는 둘째 음절의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ㄱ’과 ‘ㄴ’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21004-0021]

03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예시의 음운 변동 양상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ㄷ’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등이 있다. 용언에서는 어간 끝음절에 있는 음운이 특정한 음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축약’은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ㅎ’이 ‘ㄱ, ㄷ’ 등의 예사소리와 만나 ‘ㅋ, ㅌ’ 등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있다. 용언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받침에 있는 ‘ㅎ’이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예시	음운 변동 양상
①	멀-+-니 → 머니[머:니]	탈락
②	까맣-+-지 → 까맣지[까:마치]	축약
③	가-+-아서 → 가서[가서]	탈락
④	알-+-고 → 알고[안코]	축약
⑤	잠그-+-아 → 잠가[잠가]	축약

[21004-0022]

0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솟-+-고 → [솟꼬], 꺾-+-다 → [꺾따]
 ㉡ 훔-+-는 → [훔른], 잃-+-는 → [일른]

- ① ㉠은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② ㉡은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났다.
 ③ ‘놓-+-고 → [노코]’는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이다.
 ④ ‘훔-+-는 → [훔른]’은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이다.
 ㉠ ㉡은 모두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05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② ㉢는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③ ㉤는 ㉥, ㉦,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④ ㉨는 ㉣,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⑤ ㉩는 ㉣이 적용된 것입니다.

[21004-0024]

01 <보기>의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달히다[다치다]

㉡ 겉모양[건모양]

㉢ 흙화덕[흐과덕]

- ①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②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다음 음절의 자음과 동일하게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③ ㉡에서는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나지만, ㉠과 ㉢에서는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나는군.
 ④ ㉠과 ㉢에서는 예사소리가 ‘ㅎ’을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⑤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그 이전에 비해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군.

[21004-0025]

02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자료] ‘동화음’은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 ‘피동화음’은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이다.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구분될 수 있다. 순행 동화는 ‘질녀[질러]’처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는 것이고, 역행 동화는 ‘밤만[밤만]’처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한편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구분될 수도 있다. 완전 동화는 ‘듣는[든는]’처럼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부분 동화는 ‘숙명[송명]’처럼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 닮는 것이다.

[활동] 다음 단어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고르시오.

달님[달림] 국물[궁물] 잡무[잠무] 진리[질리] 칼날[칼랄]

조건	예	아니요
순행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입니까?		○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입니까?	○	

① 달님, 국물

② 달님, 잡무

③ 국물, 칼날

④ 잡무, 진리

⑤ 진리, 칼날

[21004-0026]

03 <보기>를 참고할 때,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탈락, 교체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음절의 끝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또한 음절의 끝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에 거센소리,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예컨대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만 한정할 때, ‘걷다[걷따]’에서처럼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넓다[널따]’에서처럼 탈락만 일어나는 경우, ‘깎다[깎따]’에서처럼 교체만 일어나는 경우, ‘웁다[웁따]’에서처럼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① 담다[담:따] → 탈락이나 교체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없다[엮:따] → 탈락만 일어난다.
- ③ 웁다[웁:따] → 탈락만 일어난다.
- ④ 같다[간따] → 교체만 일어난다.
- ⑤ 있다[읔따] →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난다.

[21004-0027]

04 <보기>의 ㉠~㉢이 [활동]에 대한 학생의 답안이라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활동] 제시어를 발음할 때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자음 체계를 활용해 설명해 보시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	
파찰음			ㅈ/ㅉ/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제시어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관련한 음운 변동의 특징
국민[궁민]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
논밭[논밭]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만 바뀐다. ㉡
굳이[구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실내[실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지 않는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1004-0028]

05 <보기>의 ㉠, ㉡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국어의 된소리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규칙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ㅂ, ㄷ, ㄱ’과 같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밥+도 → [밥또], 곧+잘 → [곧잘], 간척+-지 → [간척찌]’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예외가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 ‘ㅁ,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삼+-지 → [삼:찌], 안+-고 → [안:꼬]’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조건이 까다롭다. 용언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간 뒤에 오는 형태소도 대개 형식 형태소 중에서 어미에만 국한된다.

	㉠	㉡
①	법+만 → [법만]	답+-+자 → [답:짜]
②	국+밥 → [국빡]	답+-+자 → [답:짜]
③	국+밥 → [국빡]	안+방 → [안빡]
④	말+-+형 → [마텟]	안+방 → [안빡]
⑤	말+-+형 → [마텟]	숨+-+고 → [숨:꼬]



[21004-0029]

01 <보기>의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자료]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으면 ㉡의존 형태소로 구분된다. 또한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형식 형태소로 구분된다. 단어는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도 단어로 처리한다.

[학습 활동]

“그 새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다.”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 ① 총 1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 ② ‘그’, ‘새’, ‘우리’, ‘매우’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입니다.
- ③ ‘크-', ‘기쁘-', ‘주-', ‘-었-'은 ㉡이면서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④ ‘그’, ‘새’, ‘우리’, ‘매우’, ‘크-', ‘기쁘-', ‘주-'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입니다.
- ⑤ ‘는’, ‘에게’, ‘을’은 ㉡이면서 ㉣이고,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1004-0030]

02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덧붙이는 부분으로, 어근의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 어떤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둘로 쪼개어져 나오는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며, 이를 통해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말의 단어 구조에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다 어근인 합성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중 하나가 접사인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통틀어 복합어라고 한다. 단어를 만들 때는 합성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파생이 되거나, 파생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합성이 되는 등 여러 층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때 그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어떤 층위를 거쳐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복합어	단어의 결합 방식
①	재주꾼	어근 '재주'에 접미사 '-꾼'을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②	살얼음	어근 '살-'에 어근 '얼-'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고, 이 합성어의 어근에 접미사 '-음'을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③	도움말	어근 '돕-'에 접미사 '-음'을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어근 '말'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④	민물고기	접두사 '민-'과 어근 '물'을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어근 '고기'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⑤	접이문(門)	어근 '접-'에 접미사 '-이'를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한자어 어근 '문'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21004-0031]

03 <보기>는 품사 통용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품사 통용이 나타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품사 통용은 대체로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에서의 쓰임을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에는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와 동사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고, 의존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조사, 명사 등의 다른 품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조사 또는 명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감탄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시간 이 정말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학교 뒤뜰에 눈같이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 ② 그 독립투사는 끝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셨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하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 ③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너밖에 없다.
실내에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밖에 있자.
- ④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그 신발은 크지 않아서 내 동생이 신기에 적당하다.
- ⑤ 그 시험은 선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는 대궐만큼 크게 지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21004-0032]

04 <보기>를 바탕으로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는 대체로 하나의 용언이나 ‘체언+이다’의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장 앞에 놓인 용언이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뒤에 이어지는 용언이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앞에 놓이는 용언을 본용언, 뒤에 이어지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 (1) ㄱ.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의 빵을 다 먹어 버렸다.
 ㄴ.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의 빵을 다 *먹어서 버렸다.
 ㄷ.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 모아서 버리자.
- (2) ㄱ.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
 ㄴ.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있다.
- (3) ㄱ. 영희는 신을 신어 보았다.
 ㄴ. 영희는 지금 집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
 ㄷ. 영희는 집에서 언제나 운동복을 입고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ㄱ과 (1)-ㄴ으로 미루어, 본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 ‘-아서/-어서’가 결합한 뒤에 보조 용언이 이어지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② (1)-ㄱ과 (1)-ㄷ으로 미루어, 동일한 보조 용언이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 ③ (2)-ㄱ과 (2)-ㄴ으로 미루어, 본용언을 생략하고 보조 용언만 사용하면 올바른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3)-ㄱ과 (3)-ㄴ으로 미루어,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본용언으로도 쓰이고, 보조 용언으로도 쓰인다.
- ⑤ (3)-ㄴ과 (3)-ㄷ으로 미루어, 보조 용언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21004-0033]

05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용언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활용한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어간이 ‘ㄹ’로 끝날 때 ‘ㄴ’, ‘ㅁ’,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르’ 등이 이어지면 어간의 끝 ‘ㄹ’이 탈락하거나 ‘ㄹ’ 중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ㄹ’ 탈락, 어간이 ‘ㄴ’로 끝날 때 일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면 어간의 끝 ‘ㄴ’이 탈락하는 ‘ㄴ’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변하는 것.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ㄹ’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간 뒤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경우
 - ② ‘르’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르’가 ‘ㄹ르’ 형태로 변하는 경우

우리말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어간에 ‘-고’, ‘-지’, ‘-(으)니’, ‘-아/-어’, ‘-아서/-어서’, ‘-아라/-어라’ 등의 어미를 붙여 변화의 유형을 통해 판단한다. 이때 어간이나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면 규칙 활용,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① 이르다: 선생님께서 내일 모일 시간을 (이르- + -어) 주셨다.
→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므로 ‘일러’가 됩니다.
- ② 들르다: 나는 오는 길에 서점에 (들르- + -어서) 책을 샀다.
→ ‘ㄴ’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이므로 ‘들러서’가 됩니다.
- ③ 치르다: 선생님 도움으로 오늘 행사를 무사히 (치르- + -었습니다).
- ④ 가물다: 여름 내내 (가물- + -니) 올해의 농사가 무척 걱정된다.
→ ‘ㄹ’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이므로 ‘가무니’가 됩니다.
- ⑤ 누르다: 나뭇잎이 무척 (누르- + -어) 보이니 가을이 다가온 것 같다.
→ ‘ㄹ’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므로 ‘누르러’가 됩니다.

[21004-0034]

01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복합어]

[분류 과정]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인가? ⇨

↓ 예 아니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가 결합되었는가? ⇨

↓ 예 아니요

	㉠	㉡
①	강물, 깨물다	밀치다, 풋사랑
②	강물, 깨물다	웃음, 지우개
③	지우개, 풋사랑	밀치다, 웃음
④	밀치다, 풋사랑	웃음, 지우개
⑤	밀치다, 풋사랑	강물, 깨물다

[21004-0035]

02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만났던 사람을 구태여 밝히지 않으려 하며) “㉠누구를 만나느라고 조금 늦었어.”
- (문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밖에서 어슬렁대는 사람 ㉡누구요?”
- (할아버지께 별을 받고 있는 동생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나 별을 받는 거야.”
- (만나기로 한 친구들을 기다리며) “약속 시간이 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 (누구에게 일을 맡길지 고민하는 상사에게)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 ① ㉠은 가리키는 대상을 굳이 밝히려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된다.
- ② ㉡은 보조사 ‘도’가 결합되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 ③ ㉢은 ㉠과 달리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 ④ ㉣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사용된다.
- ⑤ ㉠~㉤은 모두 물건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21004-0072]

0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제시된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학생의 질문]

보조 용언을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답변]

한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용언이 연속되어 나타날 때, 본용언이 연속되기도 하지만 본용언 뒤에 오는 용언이 보조 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혼자서 쓰이는 본용언과 달리, 보조 용언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말합니다. 보조 용언도 활용을 하는데, 대체로 활용 양상에 따라 보조 용언의 품사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아니하다’, ‘못하다’ 등 일부 용언은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되어 쓰이는데, 이때는 보조 용언이 본용언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나 기능으로 쓰이는지, 활용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품사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동사에는 진행형 ‘-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기 2]

- (1) ㄱ. 비행기가 참 빨리 가기도 한다.
ㄴ. 꽃이 참 예쁘기도 하다. / *한다.
- (2) ㄱ.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ㄴ. 그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 *않는다.
- (3) 저 상점은 밤마다 등불을 환하게 밝혀 둔다.
- (4) ㄱ. 나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
ㄴ.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ㄱ에 사용된 보조 용언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하다’를 보조 동사라고 할 수 있다.
- ② (1)-ㄴ과 (2)-ㄴ에 사용된 보조 용언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모두 보조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 ③ (1)-ㄱ, ㄴ과 (2)-ㄱ, ㄴ에 사용된 보조 용언은 모두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2)-ㄱ, (3)은 모두 보조 용언의 어간에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형을 만들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밑줄 친 말이 모두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4)-ㄱ, (4)-ㄴ은 보조 용언의 앞에 사용된 본용언이 각각 동사, 형용사라는 점으로 미루어, (4)-ㄱ에는 보조 동사, (4)-ㄴ에는 보조 형용사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004-0077]

03 <보기>의 [과제]에 대해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였다. 적절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과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다섯’과 ‘그’의 특성에 대해 탐구해 보자.

(1) 학생 ㉠다섯이 나에게 물었다.

㉡다섯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2) ㉢그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나에게 온 ㉣그에게 물었다.

[답안]

- ㉠과 달리 ㉡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결합할 수 있다. ㉠ a
- ㉢과 달리 ㉣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성분에 해당한다. ㉢ b
- ㉠, ㉡은 모두 조사나 어미의 결합 없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 c
- ㉠, ㉡의 ‘다섯’, ㉢, ㉣의 ‘그’는 모두 품사가 통용되는 예에 해당한다. ㉤ d

① ㉠ a, ㉣ d

② ㉢ b, ㉣ c

③ ㉢ b, ㉤ d

④ ㉠ a, ㉢ b, ㉣ c

⑤ ㉠ a, ㉣ c, ㉤ d

[21004-0083]

0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겹받침의 발음 방법]

-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 ‘ㄹ’의 경우 ‘ㄹ-’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비]로 발음하고, ‘ㄴ-’이 포함된 복합어 중 ‘ㄴ죽하다’, ‘ㄴ적하다’ 등에서는 ‘ㄹ’을 탈락시켜 [비]로 발음한다.
-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 겹받침 ‘ㄲ’, ‘ㄴ’, ‘ㄷ’,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ㄺ], [ㄻ]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ㄲ’은 [ㄱ], ‘ㄴ’은 [ㄴ], ‘ㄷ’, ‘ㄹ’, ‘ㄺ’은 [ㄷ], ‘ㄻ’은 [비]으로 뒤의 자음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 뒤의 자음과 그 뒤의 ‘ㅎ’이 축약되는 경우 → ‘ㄹ’, ‘ㄴ’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에 있는 뒤의 자음과 ‘ㅎ’이 축약되어 각각 [표, 초]으로 발음한다.

- ① 없다, 활다 ② 없다, 밭다 ③ 활다, 밭히다
④ 앓히다, 밭히다 ⑤ 앓히다, 밭다

[21004-0084]

05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과제] 다음 제시된 단어를 문법적인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산나물 녹이다 곤잘 덧신 귀엽다 이리저리

학생 1: 단어를 (으)로 분류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산나물, 곤잘, 덧신, 이리저리’ / ‘녹이다, 귀엽다’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산나물, 덧신’ / ‘녹이다, 귀엽다’ / ‘곤잘, 이리저리’로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학생 1: 그렇지, (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겠다.

	㉠	㉡
①	‘체언’ / ‘용언’	‘명사’ / ‘동사’ / ‘관형사’
②	‘체언’ / ‘용언’	‘명사’ / ‘형용사’ / ‘부사’
③	‘불변어’ / ‘가변어’	‘명사’ / ‘동사’ / ‘관형사’
④	‘불변어’ / ‘가변어’	‘체언’ / ‘용언’ / ‘수식언’
⑤	‘명사’ / ‘형용사’	‘체언’ / ‘용언’ / ‘수식언’



[21004-0088]

0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자료를 참고하여 ‘걷다¹’과 ‘걷다²’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걷다¹ [걷:따] 「동사」

활용 정보: 걸어[거리], 걸으니[거르니], 걷는[건:는]

[1]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

¶ 허둥지둥 걷다.

[2] 【…을】

「1」 어떤 곳을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 그는 종로 거리를 걷는다.

「2」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 파멸의 길을 걷다.

「3」 전문직에 종사하다.

¶ 의사의 길을 걷다.

걷다² [걷따] 「동사」

활용 정보: 걸어[거더], 걸으니[거드니], 걷는[건는]

【…을】

「1」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열어 젖히다.

¶ 커튼을 걷다.

「2」 널거나 깎 것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한곳에 두다.

¶ 빨래를 걷다.

「3」 ‘거두다’의 준말.

¶ 비가 오는 바람에 들일을 걷고 돌아왔다.

- ① ‘걷다¹’과 ‘걷다²’는 둘 다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걷다¹’의 [1]을 활용한 관용 표현으로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걷다²’의 「3」 용례 문장은 ‘비가 오는 바람에 들일을 거두고 돌아왔다.’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어미 ‘-어라’가 결합한 활용형은 ‘걷다¹’의 경우에는 ‘걸어라’이고, ‘걷다²’의 경우에는 ‘걷어라’이다.
- ⑤ 어미 ‘-는다’가 결합한 활용형을 발음할 때 ‘걷다¹’의 경우에는 첫음절을 장음으로 발음하고, ‘걷다²’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04-0092]

03 <보기>는 국어의 모음 변동에 대해 학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의 설명]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뛰-+-어 → [뛰어/뛰여]’, ‘맛집이-+-오 → [맛찌비오/맛찌비요]’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입니다. 이것은 ‘ㄱ’과 ‘ㄴ’ 뒤에 오는 어미 ‘-어,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여, 요]로 발음되는 것인데, [어, 오]와 함께 [여, 요]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어간 모음이 ‘ㄷ, ㄱ, ㄴ’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고 어간 모음이 ‘ㄴ, ㄱ’인 경우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되지요. 그런데 반모음 ‘j’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만 반모음 ‘w’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표준 발음법 조항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	-----------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① ‘도랑을 뛰어 건넜다.’에서 ‘뛰어’를 [뛰어]로 발음하는 것이 규범 원칙이겠군.
- ② ‘여기가 맛집이오.’에서 ‘맛집이오’를 [맛찌비요]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겠군.
- ③ ‘밥이 다 되어 간다.’에서 ‘되어’를 [되여]로 발음하는 것은 ‘ㄴ’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군.
- ④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에서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ㄴ’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군.
- ⑤ ‘여기가 맛집이 아니오.’에서 ‘아니오’를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은 ‘ㄴ’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은 예이군.

[21004-0093]

04 <보기>를 활용하여 의존 명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ㄱ.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나.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 (2) ㄱ. 그는 {일하는, 일한, 일할, 일하던} 데가 많다.
 나. 눈이 {오는, *온, *올, *오던} 바람에 길이 미끄럽겠다.
- (3) ㄱ.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모른다.
- (4) ㄱ. 그는 사십 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 (5) ㄱ.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겠어.
 나. 어른이 되면 학창 시절에 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을 보니, 의존 명사 ‘데’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군.
- ② (2)를 보니,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 명사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 명사가 있군.
- ③ (3)을 보니, 일부 의존 명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기도 하는군.
- ④ (4)를 보니, 의존 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군.
- ⑤ (5)를 보니, 조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도 있군.